

제 목 중국 전기차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문가 견해

I 동향

(전기차)

□ 최근 중국내 전통적 내연차량의 판매가 정체되는 가운데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(PHEV* 포함) 판매비중이 금년 11월에는 40%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

*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에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하여 EV로서의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순수 전기차에 발전용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여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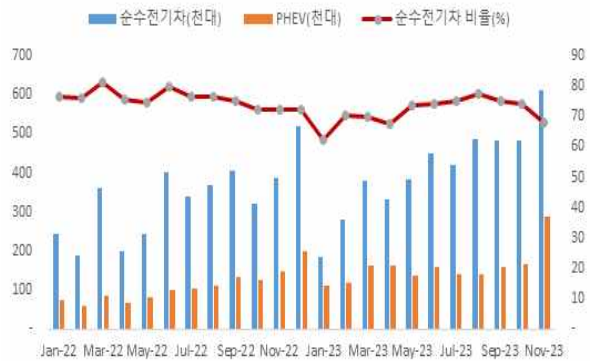
○ 다만 순수 전기차 판매비중은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PHEV (Plug-in Hybrid Electric Vehicle)의 판매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

— 충전시설 확충 등의 제약으로 인해 순수 전기차 보다는 전기와 휘발유를 동력원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PHEV의 편리성이 부각된 데 기인

중국 월별 차량 판매량 및 전기차 판매비중



월별 순수 전기차 및 PHEV 판매량



자료 : Bosera
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

□ 중국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과거보다 상당폭 둔화되는 모습

○ 전년 동기대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과거 100%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40% 내외 수준으로 하락

— 전기차 내에서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PHEV가 순수 전기차를 상회

중국 월별 차량 판매량 증감률¹⁾



월별 순수 전기차 및 PHEV 판매량 증감률¹⁾



주 : 1) YoY 기준
자료 : Boseria

(배터리 및 소재)

□ 중국내 배터리셀 및 관련 소재 산업은 과잉공급이 상당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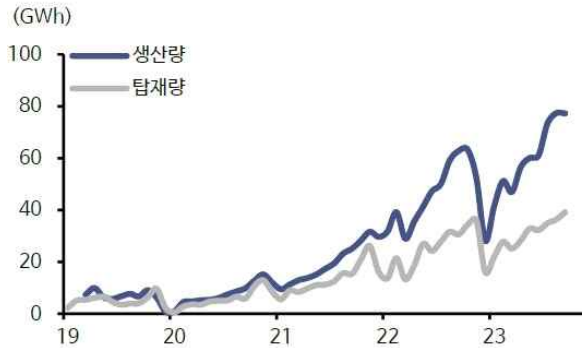
○ 실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규모보다 과도한 수준의 배터리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음

○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의 핵심요소인 리튬도 과잉공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

□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부문의 과잉공급은 과거와 같은 높은 전기차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고 대규모로 투자를 늘린 데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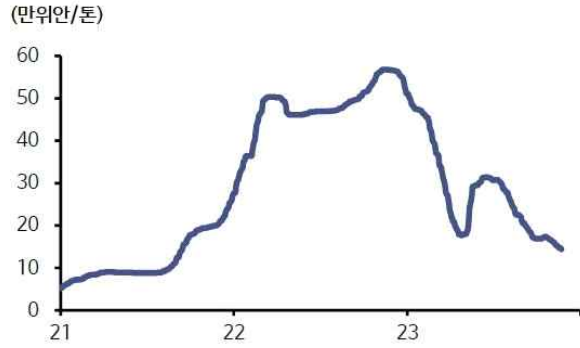
○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이전보다 상당폭 둔화되면서 산업내 과잉공급과 경쟁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

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및 탑재량



자료 : 신한투자증권

중국 탄산리튬 가격 추이



II 중국 전기차 섹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

(전기차 시장)

□ 2024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20~25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*

* 유럽 시장은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정체, 미국 시장은 보조금 삭감(7,000달러→3,500달러)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(금년 50% 내외→30% 내외)될 것으로 예상

○ 전기차 판매비중이 40%까지 도달하였는데 향후 순수 전기차가 판매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PHEV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— 고급 전기차(30만원 이상) 세그먼트에서는 순수 전기차 판매비중이 70%를 넘어선 상황이며 다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충전시설 확충 한계 등을 감안하여 PHEV에 주력하는 전략을 추진중

(배터리 및 소재)

□ 이미 투자가 진행중인 배터리 생산시설 및 리튬광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2024년중 배터리 및 리튬* 생산능력은 전년대비 10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과잉이 지속될 가능성

* 리튬은 광산개발 및 제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

○ 향후 중국의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

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 경쟁력*, 품질수준에 따른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CATL 등 대형사들보다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

* CATL의 경우 배터리 용량 1Wh당 0.1위안의 마진(마진을 약 10%)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 기업의 경우 1Wh당 마진이 0.03위안에 불과

□ 다만 전기차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

○ 또한 장기적으로는 리튬 등 소재가격 하락에 따른 전기차 가격 하락, 충전 인프라 확충, 배터리 성능개선 등이 전기차 수요를 다시 견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

(글로벌 및 한국 전기차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)

□ 중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이 공급과잉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

○ 중국 배터리 공급망 등에 대한 견제 등으로 현재 중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다소 분리된 비교적 폐쇄적인 생태계를 형성

○ 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내 시장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, 유럽 이외 시장에 대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에 주력

— 동남아시아, 중남미 등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

□ 지정학적 요인을 감안할 때 미국 및 유럽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의 본격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

○ 그러나 미중갈등이 일부 완화되거나 규제를 회피*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압도적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

*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협력을 통해 미국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CATL은 배터리 생산기술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(여타 미국내 배터리 기업 대비 원가경쟁력이 20% 높을 것으로 예상)